

고향세 도입땐 전남 年 최대 3600억 유입

전북도의회 파급효과 분석
광주는 611억 유입 효과
지방 재정유입 3조원 달해
여론조사 78% 도입 찬성

고향세 도입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향 주민 중 경제활동 참여인구 62.8% 중 고향세 기부의사가 있는 주민 78.3%가 소득세의 10%를 기부할 경우 1조 6000억원이, 평균 기부액수 27만6000원을 기부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이 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부지역 제한없이 기부 의사와 기부 금액만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이 가운데 전남은 소득세의 10%를 기부할 경우 2089억원이, 평균 기부액수 27만6000원을 적용할 경우 3646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는 소득세 10% 기부를 기준으로 할

때 355억9400만원, 평균 기부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611억원의 재정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에 사는 다른 지방 출향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세금 또는 기부금을 제외하면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향사랑 기부제(이하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내 각 지자체에 매년 2000억원에서 3600억원의 재정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2일 전북도의회 양성빈(전북 정수군) 의원이 고향기부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지방에 매년 적게는 1조6000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의 재정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북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지난 8월 3~7일 전국 성인 1000명(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기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3%(적극 찬성 19%·찬성 59.3%)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평균 27만6000원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고향세 도입에 반대한 응답자는 18.9%였으며, 나머지 15.3%는 잘 모르겠다



찬바람과 함께 '행복실은 연탄 배달' 시작
광주 북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원들이 17일 '행복실은 연탄 나눔' 배달행사를 갖고 북구 동림동의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나르고 있다. 이번 '행복실은 연탄'은 저소득가정 세대당 200장씩 15세대에 총 3000장이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오존 농도 생명 위협 수준

측정소 23곳 중 12곳 WHO 사망 경고 수준 넘어
전남 동부권 집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전국 2위

대중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 송하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일시 ▶ 2017. 10. 22(일) 08:0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62)374-6685

대중중학교
총동문회장 차 희 준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질 오염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존(O₃) 농도는 측정소 23곳 중 1곳을 제외한 22곳이 기준치(0.06ppm)를 초과했다. 또 일산화탄소(CO), 질소화합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영남권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이 정책자료집 '전국 지도로 본 오존 위험성'을 기초로 광주·전남지역 23개 측정소의 오존농도를 분석한 결과, 순천만 일대가 0.106ppm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포 부흥동(0.104ppm)·여수 광무동(0.103ppm)으로, 이들 3곳은 0.1ppm을 웃돌았다. 한국 기준치가 0.06ppm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1.7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초과 사망 위험'을 경고한 0.09ppm마저 넘어섰다.

광주·전남 23개 측정소 가운데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 곳은 광주 능성동 1곳뿐이었다. 0.09ppm이상 배출된 곳은 12개 측정소로, 이 중 7곳이 전남 동부권으로 조사돼 동부권의 오존 오염도가 심각했다. 오존은 독성과 자극성이 강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여름철 일평균 오존 농도가 0.01ppm 증가하면 심혈관질환으로 초과 사망 비율이 2.1~2.6% 높아진다.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수도권보다 많이 많았다. '권

역별 대기질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배출원은 산업 분야다.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남권이다. 호남권은 전국 6개 권역(수도·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가운데 두 번째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병원 의원은 "광주·전남 오존 배출은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고, 일산화탄소 등 대기질 배출도 수도권보다 많다"면서 "문제는 대기질오염 배출 주변이 중소규모 제조업 공장인 탓에 관리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립니다

가을... 두 바퀴의 사랑

2017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



11월 5일 영산강 일원서

초·중 학생 백일장 행사도

영산강변의 정겨움을 느끼고, 가족애를 나누며 남도의 가을을 체험하는 '2017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가 11월 5일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와 승촌보, 영산대학교 일원에서 열린다. 자전거축제는 크게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45km)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25km) ▲백일장 대회(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전부문 참가비 무료)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시작해 서창교~승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승촌보~서창대교~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구간에서 열린다.

백일장 행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늦가을 정취 속에서 가족과 함께 영산강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할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5일(일) 오전9시
- 장소 :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
- 종목 : 자전거대행진, 백일장대회
- 참가비 : 전 종목 무료
-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광역시자전거연맹,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문의 : 자전거행진 / 062-376-3112(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백일장대회 / 062-220-0541(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光州日報社

끊이지 않는 무연고 사망 ▶ 6면

공립미술관 길을 묻다 ▶ 16면

안방극장 매서운 '엄마 파워' ▶ 19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10월 13일(금) ~ 2018년 5월 18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히로시마) 직항 전세기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하계 [10. 13(금)~10. 27(금)] 무안(18:20)→기타큐슈(19:30)/기타큐슈(20:00)→무안(21:20)
동계 [10. 29(일)~03. 30(금)] 무안(18:00)→기타큐슈(19:10)/기타큐슈(19:40)→무안(21:00)

항공 3일
북 큐 슈 온천펜션 **499,000원**~
북 큐 슈 **549,000원**~
야마구치 **559,000원**~

항공 4일
북 큐 슈 **749,000원**~
야마구치 **769,000원**~

다낭·후에·호이안 직항 전세기

2017. 11. 17(금) ~ 2018.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다낭(10:40) / 다낭(14:40)→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다낭(00:10) /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핫스프링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99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노팁·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출발) **94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 다낭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금액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동조인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정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상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약관)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었던,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